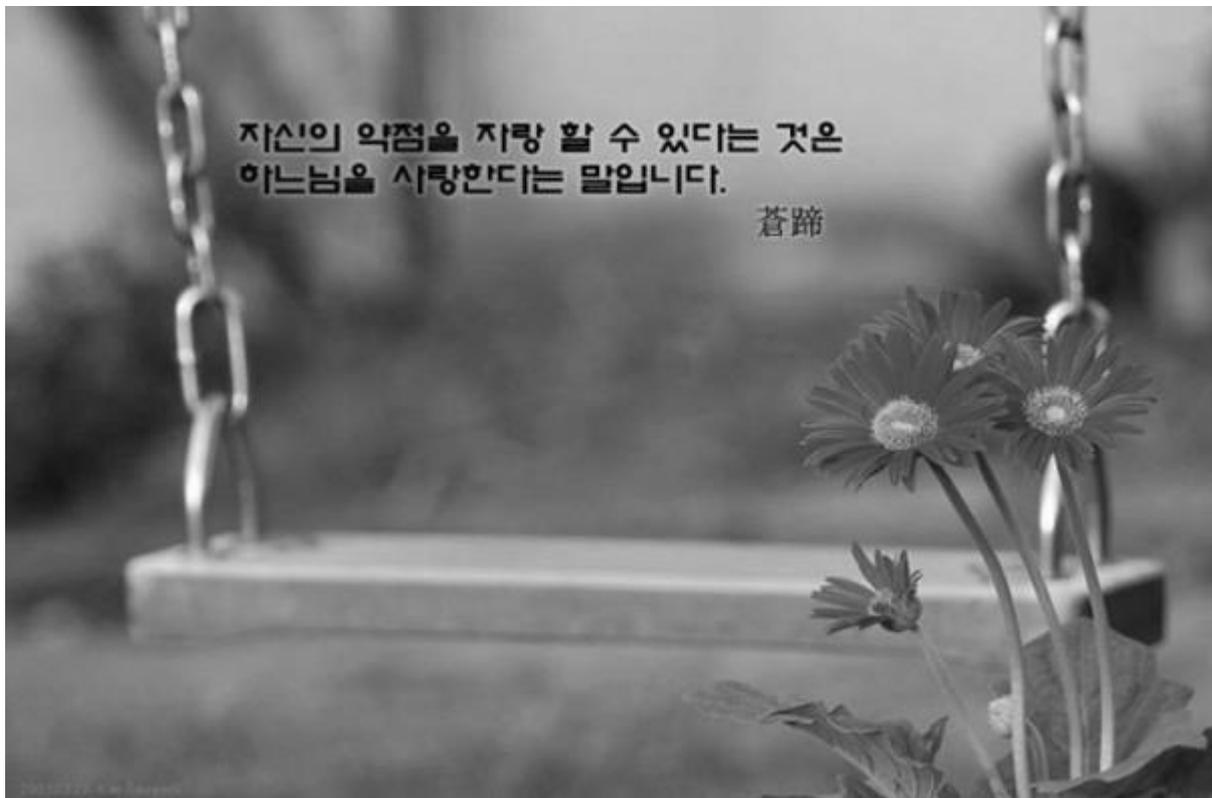


만남

2021년 10월
통권 201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겸손과 받아들임-----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4
교리	교리 톡톡-----	7
영적 상담	-----	10
보물 창고	-----	12
슬기로운 신앙	-----	14
축일을 축하합니다	-----	17
이 달의 전례	-----	18
50주년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0월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 선교 제자들

세례 받은 모든 이가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의 증거를 통하여 선교에 나서고 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겸손과 받아들임

미국이 원주민의 문명화를 앞세워 원주민 아이들을 미국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시험을 볼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원주민 아이들이 갑자기 교실 뒤쪽으로 나가서 둥그렇게 원을 만들고 시험 문제를 함께 풀었습니다. 당황한 미국인 선생이 시험 도중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치자 도리어 아이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자기네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럿이 함께 해결하도록 배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공동체’라는 말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입니다. 무언가를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정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 하나가 혹 ‘겸손과 받아들임’은 아닐는지요?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는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공동체에 기여한 만큼 이상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으며 격려를 받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며, 나보다 유능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겸손되이 청하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누구도 나의 능력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도움으로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된다면 결국 도움을 받고 일을 해결한 내 자신의 승리이며 공동체의 승리입니다. 이를 통해,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 덕분에 내가 있다는 ‘받아들임’의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에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상대방을 돕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겸손과 받아들임’을 통해 승리하고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신앙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 사람들이나 신심단체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살지 않지만 서로의 영적 유산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고 모두를 위한 봉사의 삶을 살면서 일치로 이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데 결코 나 혼자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일치와 연대’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치와 연대를 통해 나눔의 정신이 실현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능력과 달란트를 겸손되이 받아들이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겸손해져야지 상대방도 겸손을 배웁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비록 서로 다투거나 실망하더라도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 서로 마음을 열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르 10,35-45)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6장 “주의 백성 모여오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저희가 기쁨으로 선포하게 따르게 하소서.
- ❖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신 예수님!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0 35 (그때에)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36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37 그들이 “스승님께서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8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39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 10 39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40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41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42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43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44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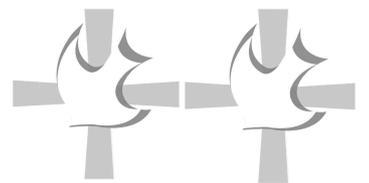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복음을 선포하는 도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수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고통 받고 순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40절) 그런 일은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달린 일이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느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서 묵묵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를 것을 가르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외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들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났으니 말입니다. 제자들 사이의 불화와 경쟁심을 보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불러 ‘다스림’과 ‘섬김’을 대조시켜 설명하십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백성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힘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통치자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디아코노스)’이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이의 ‘종(돌로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곧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섬김과 희생의 삶을 거울로 삼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6장 “주의 백성 모여오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22.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석하여 그 힘을 얻고, 지혜와 인내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특히 그리스도와 긴밀한 일치 를 이룰 수 있는 믿음과 바람, 사랑의 끊임없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평신도교령 4항 참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전통적으로 향주덕이라고 합니다. 향주덕이란 ‘주님을 향한’ 덕이라고 해서 대신덕이라고도 부릅니다. 향주덕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동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13항)

믿음은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자유로이 맡기는 것입니다. 곧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 ‘저는 믿습니다.’라고 나의 모든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과,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우리에게 믿으라고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믿게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14항 참조). 믿음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절대적인 하느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느님 안에 살기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희망 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희망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은총의 도움으로, 우리의 행복인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향주덕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17항)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몸이 병들고 아프거나, 꿈이 좌절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희망은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룹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콜로 3,14)이고, 모든 덕의 바탕이며, 덕들을 연결하고 질서를 지어 주기 때문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27항). 따라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닦아야 할 최고의 덕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이러한 사랑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코린 13,7)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간직하고 불태워야 할 신앙의 연료입니다.

23. 금육제와 금식제

천주교 신자들은 교회가 정한 날 금육제와 금식제를 지킵니다. 재(齋)는 심신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제를 지키고(대축일에는 금요일이라도 금육제가 면제됩니다),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제와 금식제를 함께 지킵니다(교회법 제1251조). 전에는 금식제를 대재(大齋), 금육제를 소재(小齋)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금육제와 금식제를 지키는 이유는 모든 신자들이 공동의 참회 고행을 실행함으로써 서로 결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성화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해야 합니다. ‘참회 고행’이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회개’를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 고행은 개인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바오로 6세, 교황령, 참회, 참조). 이러한 참회 고행은 기도와 자선, 그리고 극기를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천주교회는 정해진 날에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예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교회법 제1249조).

먼저, 금식은 하루 종일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끼의 식사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아침과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모두 금식제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몸이 허약해 금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육은 모든 육고기를 금하고 있으나 계란과 우유와 육축의 기름으로 된 양념 등은 먹어도 상관 없습니다. 금육제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14세 이상의 모든 신자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2002년 6월 25일 사도좌 승인)에 따르면 금육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금식제와 금육제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참된 참회 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과 극기를 실천하고 금식과 금육으로 아낀 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자선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136조 참조).

24. 주일 헌금과 교무금

우리는 교회에 헌금과 교무금을 봉헌함으로써 하느님께 우리의 정성을 바칩니다. 이러한 헌금과 교무금으로 교회가 유지됩니다. 교구와 본당의 다양한 사목 활동, 단체 보조, 그리고 본당 시설 확충과 유지 및 보수, 그리고 본당 사목자 생활비와 직원 인건비 등 교회 활동 전반에 사용됩니다. 사실 우리가 봉헌하는 헌금과 교무금은 우리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신자들은 주교회의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165조)

주일 헌금은 우리가 미사 중에 성찬 전례의 시작인 예물 준비 때에 바치는 봉헌금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신자들이 성찬 전례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물건들을 바치던 것이 그 시작입니다. 주일 헌금은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자기희생의 상징으로서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금입니다.

교무금은(개신교는 교무금 대신에 십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신자들이 저마다 스스로 정한 대로 내어놓는 헌금입니다. 교무금은 주일 헌금과는 달리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을 단위로 그 액수가 책정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매달 나눠서 봉헌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교무금을 얼마큼 내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입의 30분의 1을(한 달 수입 중에서 하루만큼을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는 뜻) 봉헌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교무금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정성껏 하느님께 봉헌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자들이 내는 교무금은 모두 세금 감면 대상입니다. 교무금뿐만 아니라 감사 헌금, 자모회비, 사회복지회비 등 본당에 개인 이름으로 낸 기부금은 모두 그 대상입니다. 본당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본당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 정산을 할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금과 교무금을 정성껏 바침으로써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이름으로 이웃에게 자선을 베풁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루카 21,3-4)

질문

지인들과 자주 모임을 하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대화 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해서 아주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는커녕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기 일쑤입니다. 전에 보다 못해 한 사람이 싫은 소리를 했더니, 그분은 ‘나를 싫어하느냐?’ ‘평소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난리를 쳐서 대화 분위기가 몹시 불편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은 왜 그런 것인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심리치료에선 사람의 성격을 ‘성격장애’와 ‘신경증장애’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격장애란 말 그대로 성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격장애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성격장애자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거나 심한 경우 불쾌감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감정을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가진 생각을 서로 소통함으로써 서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대화와 소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자폐적인 삶을 살거나 혹은 병적인 자기망상 안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성격장애자들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병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이들은 자기에게 심한 집착을 가져서 즉,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 자신이 가진 문제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배려심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자아상이 자랑스럽거나(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반대로 열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거나 상관없이 ‘자아’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온종일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자족하다가 짜증을 내다가 하는 거울 공주처럼 산다는 것이지요.

심리치료에서는 성격장애에 대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성격장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주변 사람들이 이들이 가진 편향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괴로워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는 그다지 힘들어하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을 더 곤욕스럽게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화상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심리적 배설물을 쏟아내는 일회용 변기통쯤으로 여기기에 대화중에 상대방이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끼기도 한다.” 한마디로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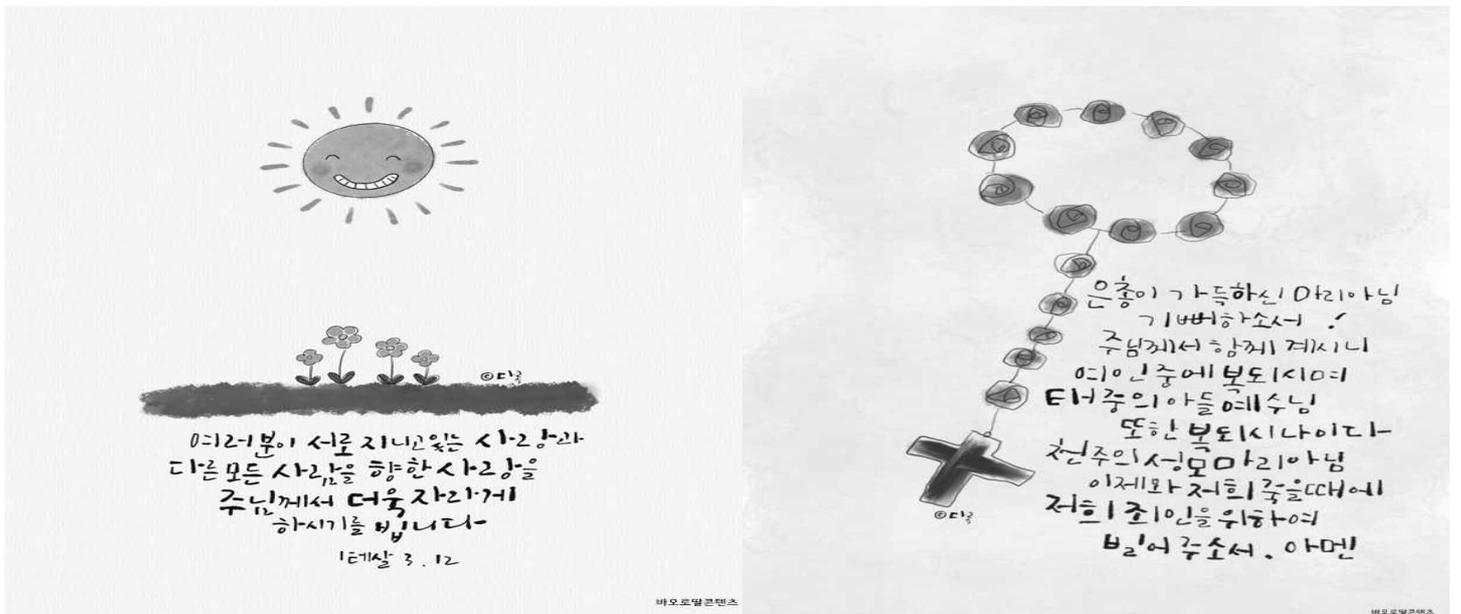
상'이지요.

어느 본당 신부가 성당에 들어가 기도하려니 십자가의 주님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신부는 “주님, 어떤 일로 그렇게 피곤해 하십니까?”하고 물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방금 기도하고 나간 놈 때문에 그런다.” 하셨습니다. 신부는 “주님께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한 사람인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서는 “기도는 나와 대화하는 것인데, 그놈은 날 보고 샷대질을 하면서 ‘주님이라며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항의를 하는데, 내가 뭐라 말할라치면 똥 싸고 도망치는 강아지처럼 나가버려서 그놈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단다.”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격장애자는 주님께서도 어찌지 못하신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격장애자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이가 들면 노파심이 많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 ‘내 나이가 돼봐야 알아.’ 하며 젊은 사람들 의견을 경청하지 않거나 충고하면서 끝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노인 진상’ 혹은 ‘성격장애자’란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어떤 노인분이 젊은 사람들과 너무 잘 지내서 비결을 물었더니 아주 간단하게 답하더라고요. 나이 먹었다고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밥을 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더니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끼워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신병리학적으로 나타난 성격장애자들도 문제이지만,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게 전부라는 과대망상에 빠지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빈 수레가 소리가 요란한 법이지요.



♥ 한국 교회의 생명운동(가톨릭 평화 신문에서 발췌)

과학기술의 발달이 삶의 질을 향상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효율성과 경제성에만 관심을 두는 사회는 고통과 희생을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생명을 돌보는 일을 소모적인 시간으로 여기며,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생명의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현대 사회의 과학기술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생명을 계획 가능하고 통제와 지배가 가능한 대상, 물질로 격하시켰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생명의 복음」에서 “이제 인간은 탄생과 죽음의 순간에, 생명에 관하여 자기 실존의 참된 의미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능력을 잃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행위’에만 관심이 있으며, 모든 종류의 기술을 사용하여 탄생과 죽음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기에만 바쁩니다. 탄생과 죽음은 ‘살아 내어야 할’ 최우선적인 체험이 아니라 단순히 ‘소유’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생명의 복음」 22항)

도구화된 생명, 인간의 기능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인간

2017년 8월, 인간 배아에서 돌연변이 유전자를 제거하고 교정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공동 연구진이 국제 과학기술지 ‘네이처’에 인간 배아에서 유전병 난치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잘라 교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 배아 연구에 제한이 있어, 이 실험은 미국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국내 과학계는 인간 배아 연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 배아 연구를 반대하는 가톨릭교회는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곧 생체 실험”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생명윤리학회도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는 ‘맞춤형 아기’를 생산할 위험성이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휴먼스(Humans)’라는 영국 드라마는 인공지능 로봇이 일상화된 미래를 보여줍니다. 남편이 사온 ‘가정부 로봇’ 아니타는 지친 아내, 엄마와는 달리 아침상도 풍성히 차리고, 청소도 잘합니다. 진짜 엄마는 로봇으로 대체되는 자신의 삶에 위기를 느낍니다. 아니타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기억을 잊지 않고 화내지도 않으며 우울해 하거나 술이나 마약에 취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난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삶을 주도합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의사를 대신해 환자를 진료하는 인공지능 의사,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인공지능 판사 등으로 인공지능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출현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표현으로 ‘육체는 단순히 기관과 기능과 에너지의 복합체로서 오로지 쾌락과 효율성이라는 판단 기준에 따라 사용될 뿐’인 문화를 형성해 냅니다. 이 같은 문화 풍조에서는 육체가 타인과 하느님, 세계와 관계를 맺는 표징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육체는 단순한 물질로 격하되며, 자기주장과 개인적 욕망과 본능의 이기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생명의 복음」 23항 참조)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공존,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소달구지를 끌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인간 사회 전체를 위한 것’(「생명의 복음」 101항)이듯, 과학 기술의 발달도 인간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동선 증진을 통해 사회 쇄신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김동광(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은 201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반포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왜 과학이 어떤 영역보다 다른 영역에서 더 잘 작동하거나, 또는 자주 작동하는지 생명·환경·보건·안전·윤리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기술의 사회적 연구는 과학기술의 실행, 수행, 과학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인공물의 생산 등에 초점을 맞춰온 데 비해, 과학기술의 비실행, 비수행, 비생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의 과학과 생명에 대한 연구와 지식이 자본의 논리에 얽매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 교수님은 “과학 지식의 생산 양식의 변화는 오늘날 생명에 가해지는 전례 없는 위협과 죽음의 문화의 구조적 원인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생명 분야의 과학기술과 생명윤리를 대립 구조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간 생명을 담보로,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연구는 법적으로 철저히 금지해야 합니다. 한 인간의 독립된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2005년부터 생명 가치 증진에 이바지한 학술 연구자에게 생명의 신비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 역대 수상자들의 연구 분야를 보면, 과학기술과 생명윤리가 공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도의 거룩함(정희완 사도 요한 신부님)

기도와 거룩함

현대 세계에서 거룩함의 징표는 ‘항구함과 인내와 온유함’의 덕목으로, ‘기쁨과 유머 감각’의 모습으로, ‘담대함과 열정’의 자세와 태도로, ‘공동체성’으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다양한 덕목과 모습과 태도와 특성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룩함의 징표 밑바닥에는 언제나 지속적인 기도의 정신과 태도가 놓여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긴 시간이 나 강렬한 감정을 쏟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어도 기도 없는 성덕을 믿지 않습니다.”(‘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47항) “거룩한 사람은 기도의 정신과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에 대한 갈망을 특징으로 합니다.”(147항) 신앙인 개인의 특성과 스타일에 따라 거룩함이 표현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거룩함의 징표들은 언제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이며, 하느님을 향한 열망입니다.(148항)

기도에 관한 신학적 성찰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우정 어린 대화이자, 빈번한 독대입니다.”(‘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49항) 대화와 독대는 시간을 요청합니다. 하느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일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의 기초위에서, 하느님과 만남에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는 일입니다.(149항)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는 일입니다.(150항) 온전히 주님께 귀 기울이기 위해서 당연히 침묵이 요청됩니다. 기도의 침묵은 세상에 대한 도피나 거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152항) 기도는 주님의 현존 안에 조용히 머무는 일이며 주님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151항)

하지만 동시에 기도는 우리의 삶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기도는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신 은총의 일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153항)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각자 자신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서 풍성한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나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153항)

은총의 일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고 마음가짐을 좀 더 편안하게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기도는 그 내용의 측면에서 탄원, 청원, 전구 기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탄원 기도는 하느님을 신뢰하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청원 기도는 흔히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희망을 간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전구 기도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의 행동이며 동시에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54항)

전구 기도는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자칫 기도가 오직 하느님만을 생각하는 일이라고 좁혀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일은 분심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구 기도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구 기도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제적 관심의 표현입니다. 다른 이들의 삶과 그들의 내밀한 고민과 고귀한 꿈을 우리가 감싸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154항)

한편으로 기도는 그 형식의 측면에서 흠승과 찬양, 침묵과 관상으로 표현됩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는 일입니다. 성경 읽기는 가장 큰 기도의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은, 우리가 멈추어 서서 스승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합니다.”(‘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56항) 그리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를 성찬례로 이끕니다. 성찬례에는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이 진실로 현존하기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성찬례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157항) 미사는 우리가 바치는 최상의 기도이며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인문적, 문학적 시선

기도는 따뜻한 대화입니다. 우리의 생은 외롭습니다. 이 조금은 외로운 생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 그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줍니다. 우리의 생은 자주 힘듭니다. 힘들 때 우리는 그 힘듦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 대화가 설혹 어떤 뚜렷한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따뜻한 대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편안함을 경험합니다. 기도 역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과 기쁨을 주는 따뜻한 대화처럼 신앙의 대화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기도는 우리를 정갈하게 하고 마음을 다잡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일은 넓은 맥락에서 기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자주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기도를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찾는다라는 것이며, 그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찾음과 그리움에서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며,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사랑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상과 희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비록 현실이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변화에 대한 꿈을 꾸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란 현실 타협자가 아니라 늘 변화를 위해 죽는 날까지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성찰입니다. 기도는 타인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축복이며 은총입니다. 그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서 기쁨과 희망이며 은총과 축복입니다.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기도는 희망의 기다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눈을 감고 밥을 먹는다/ 눈을 감고 세상을 보고/ 눈을 감으면 씹는 밥알 한 알의 맛이/ 더 깊어지고/ 현란하게 채색된 세상이/ 한 장 수묵빛 그림이 되고/ ….. / 눈을 감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더욱 깊이 확인하고/ 깨닫고 사랑하기 위해서다”(홍윤숙 시인의 시, ‘눈을 감고’에서).

“빈 향아리는 기다리고 있다/ 비어서 막막한 가슴 열어 놓고/ ….. / 아침엔 저녁을 저녁엔 다시 아침을/ 기다리는 나날엔 희망이 있고/ 미완성의 시간은 꿈꿀 수 있기에/ 빈 향아리는 그 밖의 일을 알지 못한다.”(홍윤숙 시인의 시, ‘빈 향아리 2’에서).

기도는 눈을 감고 다르게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비워내고 하느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목주기도성월
10

순종이 귀족화한 마리아님 기뻐주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어인양에 귀의하며 대왕의 아들 예수님 또한 귀의사나이다.
천주의 왕으로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속출대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 10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데레사	최 영 숙	18일	루카	현 안 이 육 태 동 호 빈
4일	프란치스코	김 진 호 김 재 영	22일	살로메	정 명 옥
	프란츠	김 기 현			
	프란치스카	김 인 순 이 정 은	23일	이냐시오	윤 용 기
7일	프랑크	김 기 년	28일	시몬	김 최 리 동 화 간 수 영 남 재
	로사리아	조 현 영			
16일	마르가리타	강 순 행 이 가 나			

❖ 10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소화데레사	김영자(B) 정옥선(H) 김경자(H) 노금순(O)	15일	데레사	임진영(O)
4일	프란치스코	부준우(O) 임종수(O) 조우성(H)	18일	루카스	이현석(H) Setiahardja Uleng(O)
	프란치스카	윤주해(B) 안수경(O)			
	프랑크	정유진(H)	30일	루실라	권명옥(O)



❖ 10월 성가번호 ❖

10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3일	437	212	175	270
10일	37	220	154	64
17일	436	221	157	246
24일	39	210	197	450
31일	271	510	198	248

❖ 10월 전례 봉사 ❖

10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3일	백정선(토마스 아퀴나스) 이영자(헬레나)	허길조(안드레아) 허명자(가밀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X
10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주일학교	X
17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X
24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주일학교	X
31일	김매자(베로니카) 최성자(벨라데타)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X

♥ 9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현금(9월 19일 기준)

강신행, 김경미, 강순행, 서세원, 우동천, 육종인, 윤석순, 이정수, 정마리아, 정명옥, 영희 Eggerstedt, 최순남, 최장용, 한말조,

* 계좌(9월 15일 기준)

권말숙 Rabe, 강일남, 김대현, 김동수, 허선애, 김유석, 김원자, 김치수, 김효정, 남궁춘배, 백정선, 송문규, 이경규, 이공종, 이명원, 이성원, 김순임, 이석우, 오옥수 Ranitsch, 정정숙, 최성자, 최종금, 최현봉, 최아나벨, 허두욱, 허길조, 이영원, 현영애, 허채열, 김영복, 김진호, 배성우,

♣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9월 20일 자 통장 잔액은 35,101,02 유로입니다(배구대회 잔액 4,449,43 유로 포함).

♥ 50주년 준비위원회 결정 내용

- ① 애초에 계획했던 기념음악회, 사진전시회, 그리고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은 취소되었습니다.
- ② 50주년 기념미사는 외부 손님의 초청 없이 함부르크 공동체와 흑시 지방공동체에서 참여가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지방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조출하게 11월 21일 일요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예수 성심 성당에서 봉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이 교회의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2021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11월 21일 일요일로 결정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적이지만 흑시라도 그때, 공동체 나눔이 가능하다면 미사 후에 나눔의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미사 중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③ 기념미사에는 지방공동체 가족분들, 브레멘, 오스나브뤼크, 하노버, 그리고 노르웨이 공동체 가족분들도 초대합니다.
- ④ 지금껏 50주년 행사를 위해 적립하였던 본당 예산 중 10,000유로를 함부르크대교구와 마산교구에 각각 5,000유로 씩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와 봉헌의 의미로 기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부르크대교구에는 위원장님과 회장님께서 총대리신부님이신 안스카 팀 신부님께 직접 전달했으며, 마산교구에는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⑤ 50주년을 기념하는 책자는 발간하지 않지만 50주년 동안의 역사에 관해서는 소책자 형식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흑시 50년 동안 특별한 행사나 기억나는 일이 있으면 김진호(프란치스코) 형제님에게 도움을 주시길 청합니다. 특별히 신심단체 활동의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0월에도 미사 후 커피 나눔은 없겠습니다. 특별히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목주기도를 많이 바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2. 10월에도 레지오 주회는 있겠지만 꾸리아와 신심단체 그리고 구역모임은 없겠습니다. 그러니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3.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매 주일미사 때마다 미사 전에 목주기도를 바쳤지만 올해에는 목주기도를 공동으로 바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목주기도를 자주 드리시길 추천합니다.
4. 10월 24일 일요일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아울러 Weltmissionssonntag이기도 합니다. 2차 헌금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10월 31일 일요일은 Sommerzeit가 해제되는 날입니다.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9월부터 지방공동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에게서 활기를 느꼈습니다. 모든 분들이 미사에 참여하신 것은 아니지만 소박한 미사가 행복임을 다시 한 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 후 나눔은 없겠습니다.
2. 오스나브뤼크 공동체의 최랑(로사) 자매님이 둘째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기쁨의 인사를 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목 협의회	매일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학교	매일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일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매일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일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일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10월(목주기도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금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국군의 날
2	토	수호천사 기념일, 노인의 날		브레멘 공동체
3	일	연중 제27주일, 군인 주일, 개천절		
4	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5	화			
6	수			
7	목	목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8	금	한로		
9	토	한글날		오스나브뤼크
10	일	연중 제28주일		
11	월			
12	화			
13	수			
14	목			
15	금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16	토			하노버 공동체
17	일	연중 제29주일		
18	월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		
19	화			
20	수			
21	목			
22	금			
23	토	상강		
24	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Weltmissionssonntag	2차 헌금
25	월			
26	화			
27	수			
28	목	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 사도 축일		교정의 날
29	금			
30	토			
31	일	연중 제31주일	Ende der Sommerzeit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보 만남 ❖

편집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